

10. 다섯 가지 도리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물의 무리 가운데 사람이 가장 귀하니,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다섯 가지 도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맹자가 말하기를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으며,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으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으며,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으며,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

고 하였으니. 사람으로서 이 다섯 가지 뚜렷한 도리를 알지 못하면, 동물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동몽선습』 「서론」)

*다섯 가지 도리 : 五倫(오륜)을 말함.

父子有親(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다.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君臣有義(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다.

夫婦有別(부부유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다.

長幼有序(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다.

朋友有信(붕우유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



五倫(오륜)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오륜이란 옛날 동아시아 사람들이 지켰던 아주 기본적인 다섯 가지 도리에요. 거기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는 父子有親(부자유친),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君臣有義(군신유의), 부부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夫婦有別(부부유별),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는 長幼有序(장유유서),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朋友有信(붕우유신)이 그것이에요.

옛날에는 사회가 오늘날처럼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사회의 질서를 나름대로 유지해 왔던 거예요.

오늘날은 사회가 복잡하고 인간관계도 다양하여 이 다섯 가지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 무리가 따르겠죠? 더구나 君臣有義(군신유의)의 경우는 임금도 신하도 없으니까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용 자체도 오늘날에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할 것 같아요. 가령 夫婦有別(부부유별)의 경우는 남녀 차별이라고 할 것이고, 長幼有序(장유유서)의 경우는 어린이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 같네요.

지금 세상은 조선시대와 달리 많이 변했어요. 옛날의 도리를 모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다 쓸모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더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어요. 가령 父子有親(부자유친)과 朋友有信(붕우유신)은 더 잘 지켜야 할 것 같네요.

사실 長幼有序(장유유서)의 경우도 어린이가 할아버지처럼 나이 드신 분보다 먼저 식사를 하겠다고 하면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도 오늘날처럼 어린이를 배려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서 때에 맞게 적용해야 돼요.

오륜이란 알고 보면 약자에게 무조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도리에요. 시대에 맞게 그 정신을 살려서 지킨다면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소개할 내용은 이 오륜을 자세히 푼 것이에요.

생각해 볼 문제

1.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다섯 종류의 사람을 말해 보세요.

- ① ②
- ③ ④
- ⑤

2. 앞에서 내가 말한 다섯 종류의 사람과 나 사이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도리(윤리)가 있다면 아래 <보기>에서 골라 표현해보자.

<보기>	우정	사랑	믿음	정직	배려	존중	예절	소통
	책임	협동	의리	차례	친함	분별	정의	기타()

- ① 나와 부모님 사이에는 ()이(가) 있어야 한다.
- ② 나와 () 사이에는 ()이(가) 있어야 한다.
- ③ 나와 () 사이에는 ()이(가) 있어야 한다.
- ④ 나와 () 사이에는 ()이(가) 있어야 한다.
- ⑤ 나와 () 사이에는 ()이(가) 있어야 한다.

3. 앞의 글에서 사람이 귀한 이유는 사람에게 도리(윤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만약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만약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 사람이 가장 귀한 까닭 :

나. 사람이 가장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

4. 長幼有序(장유유서)가 오늘날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까닭을 써 보세요.

그 이유 :

한자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아버지	아들	어른, 길	어릴	벗	있을
한자	父	子	長	幼	友	有
음	부	자	장	유	우	유

2. 다음 뜻풀이에 맞는 한자에 해당하는 음을 □안에 쓰시오.

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 : 父母(□모)

나. 친구 사이의 정을 일컫는 말 : 友情(□정)

다. 학교를 책임진 어른 : 校長(교□)

라. 길고 짧음을 나타낸 말 : 長短(□단)

3. 다음 오륜의 음을 □안에 써 보시오.

父子有親(□□□친) 夫婦有別(부부□별)

長幼有序(□□□서) 朋友有信(붕□□신)

4. 다음 오륜의 뜻에 해당하는 것을 줄로 이어 보시오.

- (1) 長幼有序(장유유서) ● ● 부모와 자식사이에는 친함이 있다
 (2) 朋友有信(붕우유신) ● ●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
 (3) 父子有親(부자유친) ● ●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다

5. 다음 □안에 알맞은 한자를 써 넣어 보세요.

가. 나는 우리 부모님의 □女(자녀)입니다.

나. 그것은 나의 所 □(소유)가 아닙니다.



급암과 한무제

『소학』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중국 전한 때 급암이라는 바른 말 잘 하기로 이름 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황제인 무제가 즉위하자 말자 주작도위라는 벼슬을 내렸는데, 자주 바른 말을 하여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못했어요. 무제에게 잘못이 있으면 목숨 따위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고치라고 말하였기 때문이지요.

주변의 관리들은 이런 급암이 무제를 화나게 만들어 벌을 받을까봐 몹시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무제는 이런 급암이 싫어서 불평을 터뜨려도 그에게 벌을 내리지는 않았지요.

언젠가 대장군 위청이 무제를 벌 때는 무제가 평상에 걸터앉아서 만나기도 하고, 승상 공손홍이 한가롭게 벌 때는 관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 무제도 유독 급암을 볼 때만은 관을 쓰지 않고는 만나지 않았어요. 황제가 관을 쓰지 않고 신하를 만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어서, 그 일 때문에 급암으로부터 바른 말을 듣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무제가 부대의 막사에서 관을 쓰지 않고 앉아 있다가 급암이 나타나자, 후다닥 휘장 안으로 몸을 피하고 사람을 시켜 급암이 하는 말이 옳다고 전했다고 해요.

나라를 크게 확장시킬 정도로 용맹을 지녔던 한나라 무제도 바른 말을 하는 신하를 예로써 대하는 것이 이와 같았어요.

어때요? 신하가 임금의 말에 무조건 찬성하거나 아첨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임금 또한 신하에게 복종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옳지 않다면 임금이 명령을 내려서도 안 되고, 신하 또한 그것이 옳다고 여겨 명령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오로지 義(의) 곧 정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君臣有義(군신유의)랍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급암 같은 신하들이 많았어요. 옛날이라고 해서 임금의 명령에 무작정 따랐던 것은 아니지요.

관련 인성 가치

존중 배려 정직